

3MIN FILM FESTIVAL

'5·18 3분 영화제'

26일까지 경쟁작 39편
'씨네허브' 온라인무료상영

오월의 회상 광주의 소리

'5월 광주, 끝나지 않은 그날 이야기'
1980년 5월 18일, 그날로부터 41년의 시간이 지났다. 세월이 흐르면서 5·18은 점점 잊혀져가는 과거의 역사가 됐고, 예술계는 이를 기억하기 위해 공연, 전시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여왔다.

최근에는 5·18을 주제로 한 3분 분량의 단편영화들을 볼 수 있는 '5·18 3분 영화제'가 열려 눈길을 끈다.

올해 2회째를 맞은 '5·18 3분 영화제'는 5·18 민주화운동이 점점 잊혀가는 과거의 역사가 되지 않음에 따라, 광주 시민들의 투쟁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스마트폰과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영상 콘텐츠를 발굴하는 행사다.

전 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인 유인학이 조직위원장을 맡고, 최형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서울지부장, 임순혜 미디어기록재단 대표가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참여해 '5·18 3분 영화제 조직위원회'를 꾸렸고, 5·18 단체와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협력해 민주·인권·평화·통일을 주제로 영화제를 진행한다. 지난해 열린 제1회 5·18 3분영화제에는 짧지만 깊은 울림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각양각색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다양한 주제와 연출로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조직위원회는 '제2회 5·18 3분영화제' 개막에 앞서 더 많은 관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경쟁작 39편을 온라인으로 상영한다. 작품들은 26일까지 씨네허브(www.cinehubkorea.com)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들은 지난 3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극영

화, 다큐멘터리, 실험영화 및 애니메이션 등 장르 구분 없이 3분 이상 20분 내외의 민주·인권·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작품을 공모했다.

공모 작품 중 예심심사위원회(정태성 예심심사위원장·영화감독)에서 본선 경쟁작 39편을 선정했으며, 심사위원으로는 영화 감독 임창재(심사위원장), 전 KBS PD 장해량, 영화 프로듀서 김영, 영화감독 심혜정 등이 참여했다.

상영작 중 '전국 민주학생에게 보내는 글'은 1980년 5월 25일 전국 학생들에게 5월의 광주 이야기를 담은 글을 보내는 한 학생의 호소를 그리며, '공소시효'는 공소시효가 지난 범인과도 같이 잡을 수 없는 존재인 떠나간 인연을 통해 공허한 감정을 표현했다.

'인비저블'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 동양계 미국인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다루며 사랑과 용서가 어떻게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지도 보여준다.

이밖에 박한열 '우리가 이뤄낸 우리의 꿈', 오정화 '오월의 회상', 이예인 '65세 미만 관람금지', 정형도 '광주의 소리', 현승재 '광주 현상기', 박재현 '메시아 Messiah', 채병연 '누군가의 상태', 황동욱 '이방인', 정다혜 '약점', 이우림 '소금쟁이', 줄리 로하트 '늑대가 온다', 김지윤 '라스피 편지' 등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한편, '제2회 5·18 3분영화제'는 오는 27일부터 6월2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리며, 영화제 개막식과 수상작 시상식은 개막 당일인 2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언젠가 봄날에'

놀이패 신명, 21일·28일·6월4일 5·18광장

놀이패 신명(대표 정찬일)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21일부터 6월 4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5·18민주광장에서 오월마당극 '언젠가 봄날에' 상설공연을 펼친다.

마당극 '언젠가 봄날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전히 끝나지 않은 항쟁의 아픔과 슬픔, 그에 대한 극복을 창작 탈 구 소리, 춤 등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2010년 초연 이후 지금까지 200회 이상 공연으로 관객과 만나왔다.

한편 놀이패 신명은 5·18민주광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광주 오월정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교육을 알리고자 매년 꾸준히 5·18 민주광장에서 상설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관람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관람이 가능하다. 문의 062-527-729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여성가족재단 '구술채록학교'

광주공동체 역사 기록...28일까지 신청

'광주시민이 기록하는 광주여성의 역사'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은 광주여성사 아카이빙을 위한 '광주여성 구술채록학교'를 개설한다. 구술채록학교는 광주시민을 전문 구술채록단으로 양성해 광주공동체의 역사를 기록하도록 하는 프로젝트 일환이다.

구술채록학교는 오는 6월 8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구술사 방법론과 여성구술생애사 사례, 구술자 선정 및 질문지 작성법 등 이론과 실전을 아우르는 총 8회 교육으로 구성된다. 구술사방법론의 이론 강의는 여성주의 구술생애사최고 전문가인 윤택림 한국구술사연구소 소장이 맡으며, 구술채록실전은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이경아 연구위원이 지도한다.

수료자들은 재단이 위촉하는 전문 구술채록단으로 활동하며, 방직공장 여성노동자를 시작으로 양동시장 상인, 미용업 종사자 등의 광주여성 생애구술 아카이빙에 참여할 수 있다. 28일까지 광주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신청.

한편 광주여성가족재단은 광주여성 구술생애사 발간과 온라인 아카이빙 등을 통해 여성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062-670-0560.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우리가 이뤄낸 우리의 꿈



박한열 '우리가 이뤄낸 우리의 꿈' (사진 위) 채병연 '누군가의 상태'

'보이지 않는' 고흥 남포미술관, 김옥진·김정하·정정복 작가 초청

고흥 남포미술관(관장 곽형수)이 지역에서 묵묵히 작업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진 작가들을 초청해 릴레이 기획전시를 진행한다.

'INVISIBLE(보이지 않는)'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특히 전남 동부권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작가들을 초청했다.

전시에는 김옥진, 김정하, 정정복 작가를 초

청했고, 작가들은 일관되게 추구해온 작업 주제를 다채롭게 펼쳐내고 있다.

GS예술마루, 오스갤러리 등에서 12차례 개인전을 가진 김옥진 작가는 간결하고 단순하게 표현된 대상과 절제된 색으로 복잡하고 바쁜 도시 이면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그려낸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화사한 파스텔톤의 따뜻한 화면이 인상적인 작품들이다.

그림 '새벽', 한국인물작가회 회원으로 활동

중인 김정하 작가는 화폭에 담긴 여성의 뒷모습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의 무게를 담담히 서술한다.

'중작과' 회원으로 활동하는 정정복 작가는 꿈꾸는 나무를 통해 자신의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성찰과 응시를 이야기한다. 신비로운 색감과 세심한 붓터치가 눈에 띄는 작품들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정하 작가 작품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